

더민주, 광주·전남·전북 시도당 사무처장 교체

호남 인적쇄신·조직정비…지역위원장 인선 ‘속도’

국민의당, 광주·전남 현역 지역구의원 모두 지역위원장 인준

아래키 4·13 총선 이후 호남 지역위원장 선출 등 호남 조직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3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 및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또한, 공모를 마감한 지역위원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은 우선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지난 10일 당직자 정기인사에서 현 중앙당 조병남 총무국장과 박규섭 조직국장을 각각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인적쇄신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 호남 민심을 되찾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모를 마감한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선출에 지역정차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발’ 광주 의석을 모두 국민의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 광주 8개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모두 16명이 공모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만큼 향후 정치적 도약·반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부에서는 총선 전 당내 경선을 방불케 하는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중앙당은 내주 초까지 지역 실사를 통해 민심을 파악한 뒤 면접을 거쳐 경선 등 선출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읍과 북구읍에서는 지난 총선 후보이자 현 지역위원장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단수 신청해 선출이 유력하다. 반면, 북구갑과 서구갑, 광산갑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북갑에서는 공천배제된 강기정 전 의원,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정준호 변호사, 지방의원 선거 출마경력이 있는 한승태씨가 신청했다. 서구갑에서는 지난 두번의 총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해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이 응모해 또 한번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갑에서도 이용빈·임한필·허문수 등 총선 경선 후보가 지역위원장 후보로 2라운드 대결을 치른다. 총선 경선에서는 이용빈 현 지역위원장이 승리했었다. 동남갑과 광산읍에서는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도전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현역 기초단체장의 지역위원장 신청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구청장이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체면을 구긴 가운데 남구에서는 총선에 출마했던 최진 현 지역위원장이 응모했다. 광산읍에서는 민 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삼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응모한 상황이지만, 자치단체장 배제를 시한한 당이 산하 공단 대표를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하면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동남읍에서는 총선 출마자인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김수정 ‘사랑의 친구들’ 준비위원이 신청했다. 전남은 유일한 현역인 이계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 지역구를 제외한 9곳 지역위원장 공모에 23명이 신청해 2.5대1

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도 우윤근(광양·구례·곡성) 전 의원을 제외하고 총선 출마자 모두가 지역위원장 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순천은 김광진·서갑원 전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고재경 전 정책위 부의장 등 7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다. ◇국민의당=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1차로 전국 56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인선을 완료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 모두가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애초 공천현금 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1차 심사에서 보류됐던 박준영(무안·신안·영암) 의원에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광주 8석 중 모두를, 전남 10석 중 9석을 석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입법활동도 ‘여소야대’

야, 20대 국회 법률안 183건 중 125건 발의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불과 1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의된 법률안은 1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87건으로 이 중 정부안 3건과 상임위 구성에 관한 법안 1건을 제외하면 총 183건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183건의 법안 중 절반이 넘는 97건(53%)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 돌풍을 일으키며 교섭단체로 원내 3당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20건(10.9%)을 발의했다. 반면 제1당의 자리를 내어준 새누리당의 경우 58건(31%)의 법안을 내놴다. 이는 새누리당이 무소속 복당 및 지

도부 개편 등 당내 어수선한 상황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7건(3%)를 차지했고,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주호영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 개인별로는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6건을 대표 발의해 전체 발의 법안 중 8.7%를 차지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한 박순자 의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대표와 김중대 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새누리 ‘총선 참패 백서’ 발간 놓고 시끌

친박 “득 될게 없다” vs 비박 “반성 후 혁신계기 삼아야”

새누리당 내에서 4·13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발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고했던 백서 발간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스스로 생체기에 소금을 뿌릴 필요가 있는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선 지도부를 이끈 김무성 전 대표, 이른바 ‘진박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경환 의원,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 자명한 만큼 부담스러운 인사들이 많은 탓이다. 한 비박(비 박근혜)계 중진은 최근 사석에서 “앞으로 잘해야지 과거 잘못을

자꾸 들춰내서 득 될 게 뭐가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대구지역의 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에 “총선 패배는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탈랑 백서 하나 낸다고 책임 회피가 될 것도 아니고, 분란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비대위원인 3선의 김영우 의원은 “백서 제작은 당이 화합 속에 혁신하고자 국민과 한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확실히 반성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무작정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

더민주 윤관석,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신문·주간지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12일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 성안은 이미 완료된 상태며 예산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시험대’ 오른 국민의당

김수민, 신청 없이 비례 당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충격
당직자 불공정 채용 논란 등
지도부 문제 해결 능력 주목

국민의당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파문을 넘어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 파문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차기 대선 구도 변화 등 정국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을 어떻게 보느냐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의 향배는 국민의당 존립 기반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잠복해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다. 지난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급히 창당,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세력이 모여들며 ‘한 지붕 다 가족’이 되면서 근본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총선 공천과 당직 인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상황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리베이트 의혹은 당내 일부 당직자들에 의해 총선 직후부터 흘러나오며 확대 재생산됐으며, 선관위의 인지 과정에도 당내 주도권을 틀러싼 이천두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의혹 파문의 중심에 있는 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도 다시 입살에 오르고 있다.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데다 별다른 경력도 없었던 그가 비례대표 순번 결정 직전에 갑자기 당선 가능권인 7번을 받은 것은 당내 주류 세력의 ‘짬짜미’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당직자들의 인사 조지와 중앙당 당직자 불공정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등 당내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뿐 아니라 전 사무총장인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도 함께 연루돼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더 큰 파문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내 리딩 파티’로 도약에 앞서 실추된 당 이미지 회복과 내부 문제 수습이라는 숙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자투표 점검 “이상무”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 등 전자투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상가건물 주택 나대지 임야 구함 062-714-2251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7억9천6백 최저가 5억5천7백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 대지 6,552㎡ 건물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
- ★ 광주 서구 쌍촌동 윤천역인근 5층옥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감정가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삼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건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 학원 식당 운영중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 대지 3,306㎡ 건물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영암버스터미널 옆 대지1,948㎡ 일반상업지구 대로변 투자 최적합 감정가 8억8천6백 최저가 8억8천6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델유형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매매27억(용13억포함),월 천4백만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용28억포함),수익성 월평균 8천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 매매 48억 (요양병원허가득)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병원건물 대지596㎡ 건물948㎡ 주택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진빌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매24억원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용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30억선 교환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신축 4층건물 대지 239㎡ 건물 564㎡ 1층 점포3개 버스정류장 앞 주변 아파트 신축중 매매 14억원
- ★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20년경력/부동산 매매,임대/전지역 신속 책임 중개/경,공매 NPL 컨설팅 010-6211-4585 조여사